

교환학생 체험수기

독일 튀빙겐 대학교 (2019년 2학기 파견)

독어독문학과 이승주

2019년 2학기부터 2학기 동안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다.

1. 입학 및 기숙사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안내 이메일이 온다. 하루에 한 번은 이메일이 왔나 확인하며 하라는 대로 신청하고 출력하고 서명하고 보내는 등 서류 처리를 했다.

기숙사는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한다. 대부분 교환학생은 WHO에서 산다. 한국인 많이 사는 것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면 수업 듣는 곳에서 가까운 기숙사가 있다면 거기를 1순위로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2. 어학 수업

서류 처리를 하는 동안 Startkurs(Start Course) 안내 이메일이 왔다. 독일어 수업을 들으면서 비자(거주허가증) 발급 처리도 도와주고 두세 번 정도 Exkursion(소풍)도 갔다.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과 학기 중에도 같이 수업을 들어서 부담이 덜했다.

3. 수업

어학 수업은 독어독문학과 수업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다.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발표도 하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봤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업 안내 책자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독일 대학교에서 수업들은 Vorlesung, Seminar, Blockveranstaltung 등으로 나뉜다. Vorlesung은 한 강의실에서 모여 수업을 듣는다.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이다. Seminar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듣고 Vorlesung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대신 ECTS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Blockveranstaltung은 특정 날짜에 거의 종일 수업을 듣는다. 대부분 이과, 상경 계열에 있다. 영어 관련 학과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독일어과에는 없었다.

한 달 정도 독어독문학과 수업을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 한국어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업이라면 듣는 데 께찮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독일어로 학과 지식을 배워서 더 어려웠다.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 ECTS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Vorlesung은 3ECTS였다. Einführung

(입문) 수업은 대부분 다른 시간에 Seminar를 더 들어야 5~6ECTS 정도 받을 수 있었고 Seminar를 안 듣고 Vorlesung만 듣는다면 출석만 반영되어 1ECTS를 받을 수 있었다.

4. 버디 및 한국학과 AG

버디는 어떤 사람과 매칭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한국학과 친구들과 맺어진 사람들은 한국학과 AG 프로그램처럼 자주 만나는 것 같았다.

한국학과에는 AG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한국학과 1학기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 멘토-멘티를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동안 도서관이나 카페 등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한다. 한국학과 학생들이라서 일단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때 마다 나도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설명할 때 독일어로 설명했더니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슬랭,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독일 문화를 많이 소개해줬다.

5. 교통

WHO에 살게 된 사람이라면 Semesterticket 살 것이다. 2019년 2학기에는 99.70유로였고 2020년 1학기에는 104.70유로 정도였다. 이게 있다면 Metzingen, Reutlingen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

독일 여행을 자주 갈 사람이라면 DB에서 판매하는 MyBahnCard나 BahnCard도 사는 걸 추천한다. 베를린에 갈 때 30~40유로 정도 할인받아서 탔다. 독일 교통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이런 카드 하나 사놓으면 티켓을 살 때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있는 동안 해외를 많이 돌아다닐 거라면 안 사는 것을 추천한다.

6. 기타

국제학생증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튀빙겐 대학교는 서류 처리가 다 끝나고 입학 허가가 되면 학기 시작 즈음에 학생증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독일에 간지 3~4주 정도 뒤에 학생증을 받았다. 이걸로 Mensa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프린트도 이용 가능하며 기숙사 지하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없이도 여행할 때 이 학생증을 보여주면 할인되어 들어갔다.

독일에서는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를 내는 게 의무이다. 그걸 내라는 편지가 올 때 내는 건데 이 편지는 복불복이다.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받는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처리하면 된다. 귀국할 때도 꼭 해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 돈이 나갈 것이다.